

생활환경 향상 · 새만금 수질 개선 효과

익산 왕궁 악취 개선 ·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축산분뇨 해결 노력

전북도가 수십여년에 걸쳐 전북의 최대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던 익산 왕궁지역 축산분뇨 악취와 수질문제를 불가항력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획기적인 개선효과를 거두면서 주민 생활환경과 새만금 수질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23일 가축분뇨가 합류되는 익산 왕궁 악취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6년여만에 준공되고 주민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왕궁 정착농원 일대가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실감나는 곳으로 변화했다.

이는 전북도와 정부가 악취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대책 일환으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왕궁지역 축산분뇨 해결 노력(환경개선사업)이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북도는 복원사업을 펼치면서 분뇨 무단방류 근절을 위해 시·도 합동단속(월1회 이상) 및 취약시간대(주1회 이상, 심야·강우 등) 수시단속, SMS 등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계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매월 2회 이상 민경강은 물론 동진강 유역에 이르기까지 하천 예찰활동과 수시 현장점검활동을 벌이면서 SMS 등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계도를 우선시 해왔다.

특히 분뇨 무단방류 근절을 위해 시·도 합동단속, 취약시간대 수시단속,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불법행위 적발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생태하천으로 살리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불사하고 있다.

아울러 주교제의 생태복원을 추진

하면서 악취와 수질오염의 근원인 현업과 휴폐업 축사 매입을 통한 가축사육두수 감축, 마을환경 리빙 등을 포함한 정착농원의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속도를 붙였다.

전북도에서는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하면서부터 도정 최대 역점과제로 놓고 그동안 꾸준히 왕궁지역의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범이자 오랜 숙원인 지역 내 가축분뇨 저감을 위해서 집단 축산단지 내 현업 및 휴·폐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업 및 휴·폐업축사 매입사업은 1,113억원을 투입해 65만㎡를 매입, 철거 후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1만7,000㎡(계획량의 80%) 매입 완료했다.

도는 올 들어서도 휴·폐업축사 잔여부지 1만8,000여㎡ 매입계약을 체결

결해 수립조성 부지를 늘렸다.

가축 사육두수도 36%(2016년말 기준)로 크게 낮아졌다. 올 연말까지 매입이 완료되면 정부대책 발표 당시 12만마리가 6만마리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간이양로시설·복지시설 설치 등 마을종합개발, 주민생활개선사업 등을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협조를 이끌어 내면서 결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전북 최대 해결 사안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왔다"며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면 지역 이미지 추락을 크게 개선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왕궁지역 축산단지가 환경문제 없는 생태마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수질개선과 '이달의 으뜸도정상'

'우수부서' 사회복지과 · 탄소산업과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을 통해 수질 및 악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만금수질개선과가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수상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총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내부 선정 절차를 거쳐 최우수 부서에 새만금수질개선과가, 우수부서에는 사회복지과와 탄소산업과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새만금수질개선과는 왕궁지역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범이자 오랜 숙원민원인 지역 내 가축분뇨 저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악취 및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 복지환경 조성에 기여한 성과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탄소산업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자동차투명부품 제작용 3D프린터 장비개발 등 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돼 국비 217억원을 확보했다.

/인재용 기자

성장동력산업 투자유치 모색

도, 간담회 개최... 타깃기업 79개 유치상향 · 지원방안 논의

전북도는 23일 성장동력산업분야 기업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진흥정무부지사 등 성장동력산업 부서와 관련된 연구·출연기관 투자유치 담당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별 TF의 투자유치 추진상황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장동력산업 투자유치 TF 간담회에서는 자동차·농기계, 농생명 식품 등 육성 사업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기업투자로 일자리 창출 성과로 나타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부서·혁신기관 간 보유지원 연계 지원 및 협업을 통해 실제 투자 실행방안을 찾는 자리였다.

그간 발굴한 자동차·농기계 23개, 신재생에너지 7개 등 30개 타깃기업에 대해 현재 투자유치 추진상황을 협의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탄소산업 분야에서 발굴한 21개 타깃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를 구해

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추진상황 공유와 대응전략을 논의했는데 이들 중 2~3개 기업은 곧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4차산업 혁명 추진과 산업부 12대 신산업 육성정책에 농생명 식품, 탄소소재 등 전북도 성장동력산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관련 산업 인프라와 R&D지원 등 육성사업을 활용한 정부사업에 참여하고 성장동력산업을 고도화시키는 한편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도와 출연·연구기관이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진흥정무부지사는 "성장동력산업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기업투자로 이어지도록 전북도와 혁신기관들이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산업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 인프라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도, '빅데이터 특특데이' 개최

전북도는 '빅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넓게 활용하자'는 취지로 매월1회, 실국 순회 '전문가와 함께하는 빅데이터 특특데이(Talk-Talk Day)'를 운영한다.

'빅데이터 특특데이'는 각 실국별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의 사례발표를 통해 생각을 나누는 빅데이터 토론 및 공유의 장으로 운영된다.

또한, 자유롭고 편안한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점심시간을 활용해 '브라운백 미팅'으로 진행하게 된다.

첫 번째, '특특데이'는 23일 도청 인근 카페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이 보이는 빅데이터, 잘 써먹기'란 주제로 특특데이를 가졌다.

특특데이는 전북도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학습하는 문화를 정착함은 물론 직원간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기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이를 이해하고 업무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매월,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주)두산 연료전지 익산공장 준공식

두산 연료전지 익산공장 준공식

23일 익산 (주)두산 연료전지 익산공장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박정원 두산그룹회장, 조배숙 국회의원, 정현을 익산시장, 관련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 두산 연료전지 익산공장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관련기사 7면>

도, AI.구제역 매몰지 소멸처리 추진 3년 경과 · 민원발생 매몰지 대상

전북도가 가축매몰지 중 관리기간(3년) 경과 및 민원발생 매몰지에 대해 이동식폐사축처리기 등을 활용해 소멸처리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ERP 저장조를 이용한 살처분을 실시해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관리기간이 경과한 매몰지에서 탈 등 잔재물이 미 부속돼 일반용지로 전환에 어려움이 있어 전국 최초로 이동식폐사축처리기 등을 활용해 매몰지 소멸처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절차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해 23일 축산과 방역상황실에서 설명회

를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달 중 시군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6월중 매몰지 실태 파악과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농식품부 및 환경부에 매몰지 소멸처리 계획서 제출 후 6월부터 10월까지 123개 매몰지에 대해 소멸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전북도와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15년 10월 노동조합 요구로 시작됐던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23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송하진 지사와 최병식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도청 직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단체협약은 전문, 본문, 부칙 포함 전체 86개조 163개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숙직 대체휴무제도 시행, 청사카페 설치, 당직비 인상 및 리모델링 등이 있으며, 원칙과 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